

【특 집】

## 만주국 붕괴 이후의 귀환서사 연구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 -

이 경 재\*

### ┆ 차 례 ┆

1. 만주국 붕괴 이전과 이후의 조선인
2.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지향성 -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3. 새로운 주체의 탄생가능성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4. 결론

### 국문초록

만주국이 붕괴되었을 때 만주는 만인들의 민족주의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곧 그 열기는 만인들의 일본인과 조선인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김만선의 「귀국자」와 「이중국적」에는 만인의 조선인을 향한 폭력이 오족협화(五族協和 - 다섯개의 민족이 협력하는 것)와 내선일체(內鮮一體 -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주장)의 담론공간 모두에 포섭되어 있었던 애매한 위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조선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서사는 대부분 민족주의에 바탕하여 제국의 신민이 조선민족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는 민족주의의 열기에서 벗어난 반식민주의의 문학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슷한 시기 후지와라 데이가 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소년은 자란다』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살펴 보았다.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만주국 붕괴와 함께 장춘에서 조선을 거쳐 고향인 스와까지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수기이다.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귀환의 여로를 통하여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은 근거에서부터 붕괴되고 일본인의 위선은 날날이 드러난다. 그 붕괴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은 따뜻한 가족과 고향의 품이다.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귀환의 과정을 통해 만주국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일본인 공동체의 환상을 기초에서부터 허문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과 고향, 그리고 집단주의는 절대적인 힘으로 작품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다. 후지와라 데이의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와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후지와라가 그토록 갈망하던 고향이 『소년은 자란다』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선을 향하는 영호 가족의 여로는 귀환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에 가까우며, 영호 가족은 귀환자가 아니라 피난민에 가깝다. 생존의 논리에만 따르는 영호 가족의 정체성은 만주에서 귀환한 ‘농민’이라는 것뿐이다. 또한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가족과의 결합으로 서사가 귀결된다면, 『소년은 자란다』는 가족의 해체로 서사가 귀결된다. 궁극적으로 『소년은 자란다』는 완전한 단독자로 선 영호의 모습을 통해 민족주의의 과장된 열기에서 벗어나, 미약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형상화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만주국, 귀환, 민족주의, 가족, 고향, 단독자

## 1. 만주국 붕괴 이전과 이후의 조선인

만주국은 1932년 3월 1일 건국되어 약 13년 6개월 동안 존속되다가 1945년 8월 18일 황제 푸이의 퇴위 선언과 함께 사라진 국가이다. 만주국의 붕괴는 그곳으로 이주해 온 여러 민족들이 귀환이라는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대한 과제로 여기게 만들었다. 만주국 붕괴 이후 만주로부터 남북한으로 유입된 인구는 753,322명이고, 그 가운데 1947년 말까지 남한으로 귀환한 인구는 343,58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194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종전 후 1949년까지 만주 조선족 전체의 45.4%가 한반도로 귀환했으며, 귀환인구의 54.4%는 북한으로, 45.6%는 남한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sup>1)</sup> 삶의 터전

을 버리고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가 한반도로 이동한 이유와 양상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sup>2)</sup> 이 글에서는 만주국 붕괴 이후를 다룬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국이 붕괴되었을 때, 만주라는 지역은 본래 그 땅의 주인들이었던 만인들의 민족주의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조선인 작가들에게 그 열기는 우선 만인들의 일본인과 조선인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소년은 자란다』에서는 해방 이후 조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짓말 같기도 한 참말 같기도 한 소문”<sup>3)</sup>이 만주에 널리 퍼진 것으로 형상화된다. 실제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영호의 어머니는 소반을 가지러 고향집에 갔다가 만인들에게 겁탈당한 후 살해당한다. 조선인들은 만인들의 소행인 것을 확신하지만, 사방에서 만인들이 들고 일어나 조선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자자한 판국에 감히 그들과 시비를 가리자고 나서지 못한다. 실제로 영호가 이리역에서 만난 이주민의 딸자식 역시 “무도한 되놈들”(278)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그려진다. 김만선의 「압록강」에서도 “대부분의 조선사람들은 만주서 그대로 살아나갈 자신을 잃었고 생활이 불안해만 갔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 보다도 법이 멀고 집단생활이 아닌 촌에서 더 심한 까닭으로 만주땅과 몇십 년씩 씨름했던 농사꾼들이 대부분 피란민열차에 몸을 실”<sup>4)</sup>었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차지한 독특한 위치를 이해해야 한다. 오족협화를 공식이념으로 내세운 만주국에서 조선인은 매우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김만선의 「귀국자」와 「이중국

1) 만주국 건국시에 67만 명이었던 조선인은 1945년에는 216만 명으로 늘어났고, 만주국 붕괴 이후에는 약 112만 명의 사람들만 만주에 잔류하게 되었다.(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 341쪽)

2) 강인철은 “유감스럽게도 각각의 시기별로, 그리고 개별 하위집단별로 귀환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강인철, 1998, 「미군정기의 인구이동과 정치변동」, 『한신논문집』, 15집 2호, 15쪽)고 이야기되는 상황이다.

3) 채만식, 1989, 『소년은 자란다』, 『채만식전집 6』, 창작과비평사, 309쪽. 앞오로의 인용 시 본문 중에 쪽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4) 김만선, 1948, 「압록강」, 『압록강』, 동지사, 91쪽. 「귀국자」, 「압록강」, 「이중국적」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하였다. 앞오로의 인용 시 본문 중에 쪽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적」에서 가장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다.

「내선일체」가 아닌 「민족협화」(民族協和)가 만주에서의 왜정(倭政)의 구호이었을 때 「만주국」의 한 개 구성민족이라고 겉으로나마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영애는 「도모노가이」(友情會)란 일종 귀족적인 부인회를 조직해 이 민족과의 친선을 부르짖게 되었다. 만 민족과의 친선이라고 하나 주동체는 일녀(日女)들이라 만주여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피동체였으며 조선사람들은 만주국에서의 조선사람들 지위가 정말 한개 민족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인지 일인취급인지 도무지 분간키 어려웠듯이 조선부인네들만의 분회(分會)를 가졌으면서도 일인들의 예속적 혹은 보조적 기능밖에 발휘를 못했었다.

그러므로 이 도모노가이에 입회한 조선여자들은 쫓대가 없었다.

(「귀국자」, 18)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만주국의 조선인은 ‘정말 한 개 민족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인지 일인취급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조선인은 오족협화와 내선일체의 담론공간 모두에 포섭되어 있었던 애매한 위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과 대등한 민족으로 대우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혁은 신문사에서 관청으로 다시 관청에서 신문사로 직업을 옮기는데, 이유는 모두 일본인 상사의 간섭이나 특별 취급 때문이다. 관청에서는 “기무라란 이름으로 통했으나 역시 센징(조선인)이라서 특수한 취급을 받아 실증이 났었”(21)다는 말처럼 외양은 아무리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인 되기에 열중하던 영애조차도 일본인과는 달리 삼분의 이는 좁쌀이 담긴 배급을 받자,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면서 황국신민은 무엇이고 징병은 무엇이야”(24)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신문사와 관청을 넘나들며 일본인들만 사는 관사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보통의 농민이나 만인들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5) 혁과 영애는, 야마무로 신이치가 만주국에서의 조선인 위치를 두고 한 “한반도에서는 항

이러한 애매한 위치는 지식인이 아닌 농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국적」에서도 일제의 항복 소식을 들은 만인들은 “만세를 부르려는 듯한 기색은 영 보이지 않고 눈에는 살기들을 뺨”(65)친채,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 이웃 동네에서는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조선인들도 살해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신경(新京) 변들이”에서 살아온 박노인은 앞으로도 별 탈 없이 만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과 친하고, 폭동이 일어난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늘 만주옷을 입고 다녔으며, 능숙한 만주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노인은 “중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어엿한 중국인이라 국적”(70)을 가졌고, 이제 곧 본실로 들어설 만주여자를 첩으로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인 “폭도들”(67)은 박노인의 집에도 들어닥친다. 박노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왕씨집으로 옮기고, 자신을 살해하려는 만인들의 행동이 “천만부당한 것”(70)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아무리 만인들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자 해도, 조선인이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일말의 차이점(특권)이 암시되어 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십수년전 일인들의 만주에 대한 야망은 차츰 노골해가는 한편 이것을 막으려는 중국인들틈에 끼어 재만조선인들은 처신하기에 난처했다. 아주 일인들의 앞잡이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 현지 당국인 길림성장(吉林省長)의 소청대로 귀화하던가 하지않으면 그날그날의 생활에까지 위협을 느끼었다. 그때 박노인은 선선히 중국인으로 국적을 고치고 말았다. (중략) 만주국이 탄생된 후에야 귀속에다 간직했었다. 농사를 짓는 한편 토지매매를 소개해오던 그로서는 그가 중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편이 유리한 까닭이었다. 그것은 그가 만어를 잘하는 조선인이기에 쉽사리 일인들에게 토지를 소개해 올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중국의

---

상 헌병으로부터 감시를 받지만 만주는 대단히 넓기도 하고 또 조선민족이 오죽협화 가운데 일본 다음 가는 중요한 구성요인이라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느 정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는 대우를 했다는 말이지요.”(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8쪽)라는 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선인 부부는 “만주에서 이등국민”(같은 쪽)으로 대우 받았던 것이다.

동삼성(東三省)이 만주국으로 행세하게된 후로부터 일인들 앞에서 조선인들이 공공연하게 조선인으로서 처세한 것은 기실 조선인으로서이기보다도 일본인인 ‘반도인’으로서였기 까닭에 일어난 불과 몇마디 못하는 박노인이었으나 아들 명환의 일어를 빌어 만인들의 토지를 일인에게 소개해 주는 잇속에 빠른 그에게는 중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증거물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였다. 그리던 그는 작년부터 또다시 묵은 문서를 저고리 안주머니에다 지니고 다녔다. 정쟁 때문에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어느 때 또 그놈이 긴요하게 쓰일지 몰라서였다.(71-72)

박노인은 ‘만어를 잘하는 조선인이기에 쉽사리 일인들에게 토지를 소개해 주며,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조선인으로서 이기보다도 일본인인 ‘반도인’으로서’도 행세할 수 있었다. 국적보다는 생존을 더 우선시하는 박노인은 일본이 만주에서 물러난 상황이 닥치자 “중국사람으로서 행세하는 편이 유리하다면 중국인으로서 또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서 우대해준다면 그대로 조선인으로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던”(74)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만인들로 하여금 “조선사람들은 일인들의 앞잡이었으니까 조선사람들도 닥치는대로 처야한다는 민족적인 감정”(78)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sup>6)</sup> 결국 박노인은 중국사람이라는 민족을 내세웠으나 ‘중양군이 아닌 ‘국군’들에게 돈도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만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조선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소설 역시 다수 창작된 것이다.<sup>8)</sup> 최근 들어 귀환의 서사는 ‘국

6) “중국인은 한국인을 더러운 일-아편굴 경영자, 매춘, 밀정활동 등-은 무엇이든지 하는 ‘일본인의 하수인’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인의 대부분은 재산을 잃기보다 중국인에 의한 학대를 감수하는 길을 택한 수백 세대의 가족을 남기고 중국 북부로부터 귀환했다.”(아사노 도요미 감수 해설, 이길진 옮김, 2005, 『살아서 돌아오다-해방공간에서의 귀환』, 숲, 45쪽)

7) 박노인이 겪는 일은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 시대에 일본인=‘동양퀘이즈(東洋鬼子)’에 다음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얼퀘이즈(二鬼子)’로서 전후에 참혹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341쪽)다는 설명에 부합된다.

8) 만주로부터의 귀환을 다룬 작품으로는 김동리의 「혈거부족」, 김만선의 「암록강」과 「귀국자」,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삼팔선」, 정비석의 「귀향」,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허준의 「잔등」 등이 있다.

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귀환서사가 국가(민족) 건설과 민족 정체성 형성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중현은 식민지 시기 동안 “동아시아적 지리가 어떻게 소설의 심상지리에서 축소되어 해방기 민족국가의 지리로 경계 조정되었는가를 밝히고, 새롭게 형성되는 남북한이라는 국민국가로 그 경계가 고착되어 갔는가”<sup>9)</sup>를 검토하고 있다. 정재석은 “귀환의 서사가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sup>10)</sup>이며, “결속의 상상력과 더불어 내적인 균열의 양상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sup>11)</sup>라고 주장한다. 귀환 서사에는 ‘국민 만들기’와 ‘국민 되기’ 사이의 길항관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태영 역시 해방기 귀환서사는 “그 자체로 개인의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욕망을 내포”<sup>12)</sup>하고 있으며, 귀환서사가 보여주는 “‘조선인-되기’의 과정은 귀환 주체의 계층, 직업, 성별 등에 따라 위계화된 차이를 보인다.”<sup>13)</sup>고 이야기한다. 최정아 역시 “귀환서사는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례와 형식”<sup>14)</sup>이라는 입장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부분의 귀환소설들이 제국의 신민이 조선민족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신천지』, 1951년 1월)에는 아버지는 조선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인 조준식 / 마쓰노라는 남자가 등장한다. 부산 동래가 원적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나가사키에 있는 외가에서 성장하면서 외조부의 민적에 이름을 올린다. 조준식 / 마쓰노는 만주국에서는 조선인 아버지를 감추고 철저히 일본인 마쓰노(조준식)로 살아간다. 이것은

9) 정중현, 2006,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비교문학』 40집, 132쪽.

10) 정재석, 2007,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2호, 182쪽.

11) 위의 논문, 188쪽.

12) 오태영, 2007.6,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문학연구』 32집, 515쪽.

13) 위의 논문, 516쪽.

14) 최정아, 2009,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33집, 389쪽. 해방기 귀환서사는 일본으로부터의 귀환과 만주로부터의 귀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평화와 재생의 상상력이 후자에서는 회복과 결속의 상상력이 서사 전개의 기본 동력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오족협화의 이념과는 달리 실제로 만주국에서 일본인이 철저히 지배자로 군림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역전된 상황이 펼쳐진다. 조준식/마쓰노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일본적인 것은 철저히 부정하고, 조준식(마쓰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조준식/마쓰노를 조준식(마쓰노)으로 탄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만주국에 살다가 신의주로 먼저 귀환한 조선인 홍규이다. 홍규는 조준식/마쓰노를 만주로부터 귀환시키고, 그가 생존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그런 홍규는 조준식/마쓰노에게 “조선으로 가겠느냐 일본으로 갈 생각이냐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조선사람이냐? 일본사람이냐?는 말이에요.”<sup>15)</sup>와 같은 양자택일적인 질문을 던지고, 조준식/마쓰노는 “인제는 조준식이지만 마쓰노는 아닙니다.”라고 하여 조준식(마쓰노)이 될 것을 선언한다. 작품은 지위버릴 수 없는 혼혈적 정체성으로 힘들어 하는 조준식(마쓰노)이 홍규로부터 태극기를 받은 후에, “이 기를 받고나니 인제는 제가 정말 다시 조선에 돌아온것 같고 조선사람이 분명히 된것 같습니다.”<sup>(41)</sup>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다. 흥미로운 것은 조준식/마쓰노라는 혼혈적 정체성을 조준식(마쓰노)으로 변경시키는 일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홍규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라는 점이다.<sup>16)</sup>

김동리의 「혈거부족」(『백민』, 1947.3)에서도 만주에서의 귀환은 곧 조선민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의 민족은 남한이라는 국가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이다. 평안도와 경상도의 사투리가 어우러지는 방공호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당시 생존의 최저한계선으로까지 내몰린

15) 염상섭, 1997, 「해방의 아침」, 『염상섭전집 10』, 민음사, 23쪽. 앞으로의 작품 인용 시 본문 중에 쪽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16) 김승민은 해방 직후 쓰여진 「해방의 아들」, 「혼란」, 「모략」이 “일제 말 만주 체험에 대한 염상섭 식의 자기 고백”(2007,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269쪽)이라고 해석한다. 김중옥은 「해방의 아들」에서는 식민지배자로서 토착민을 억압했던 지배의 경험은 망각되고, 피해의 경험만이 부각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의 붕괴 이후 흔히 나타나는 동일화와 반동일화를 통한 민족정체성의 재구성 과정”(2008,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현대문학의 연구』 35집, 115쪽)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조선민족을 상징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혈거부족들은 일본의 패망을 독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독립은 강대국의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 법이 서고 그에 바탕해 국가가 성립하는 일에 해당한다. 이때 이 국가의 구성원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애꾸눈이 윤서방은 배제된다. 그것은 윤서방이 순녀를 겁탈하려고 시도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만주에서 살다 돌아온 순녀에게 귀환은 남한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귀환소설에서는 만주국의 붕괴와 동아시아를 점령한 민족주의의 열기에서 벗어나 탈식민의 문제의식을 보여준 소설들이 있다. 허준의 「잔등」과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가 대표적 사례이다. 허준의 「잔등」은 뱀장어소년/국밥집 노파의 대비를 통하여 민족주의적 구심력을 뛰어넘는 인류적 차원의 보편애를 주장하는 작품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에 나타난 반식민주의의 문학적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슷한 시기 후지와라 데이가 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라는 귀환서사(17)와의 비교를 통하여 『소년이 자란다』에 나타난 만주국 붕괴 이후의 탈식민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국의 붕괴는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던 일본인에게도 귀환이라는 문제를 절실한 과제로 만들었고, 실제 수많은 귀환과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창조해냈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비교 작업을 통해

- 
- 17) 귀환자들이 쓴 귀환서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소련 참전, 8·15 시기부터 서술되기 시작한다. 그 이전의 사실이 서술되는 경우에도 간략하고, 일본 이민의 중국인, 조선인 등과의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② ‘비적’의 반란, 소련군의 폭행,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귀환 당시의 비참함이 묘사되고 있다. ③ 이민자를 남기고 도망간 관동군, 송출할 때와 정반대로 차가운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山田昭次, 1978, 『近代民衆の記録6 滿州移民』, 新人物往來社, 49쪽; 오미정, 2009, 『일본 전후문학과 식민지 경험』, 아카넷, 171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징은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도 해당하는 특징이다.
- 18)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 당시 재만 일본인은 약 23만 명이었지만 1945년 8월에는 6.7배인 약 155만 명에 달했다. 패전 이후 대부분의 일본인은 귀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55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346-348쪽)

한국 귀환소설이 지닌 특질과 의미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 2.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지향성 - 후지와라 데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sup>19)</sup>는 만주국 붕괴와 함께 신경에서 조선을 거쳐 고향인 스와까지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수기이다. 남편과 헤어진 후지와라는 홀로 세 아이(여섯 살, 두 살, 1달도 안 된 아이)를 책임지며, 신경, 봉천, 안동, 선천, 평양, 개성, 부산을 거쳐 일본에 도착한다. 경제적인 궁핍은 그녀의 여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sup>20)</sup> 귀환의 여로가 이 작품의 서사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소를 찾아내자면 그것은 ‘제국(만주국)의 붕괴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

19) 이 책은 1949년에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다음해에 『내가 넘은 삼팔선』(수도 문화사, 1950)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 1965년에는 『세계 베스트셀러 선집』 실화편에, 1970년에 『20세기 고발문학선집』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3년 청미래에서 위귀정이 번역한 책을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의 인용 시 본문 중에 쪽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20) 패전 당시 일본인은 북한 지역에 약 50만 명, 남한 지역에 약 27만 명이 있었으며, 만주에서 빠져나온 피난민은 약 12만 명에 달했다. 북한에 거주하던 일본인 중 피난 기차를 탈 수 있었던 사람은 군인과 경찰관 가족 등 일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소 등지에서 1945년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북한에서 죽은 사람은 약 2만 5천 명에 달했다. 남한의 미군은 일본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이었지만, 일본인은 제한된 재산을 가지고 밀항해 일본으로 향하기도 했다. 1945년 말 남한의 일본인은 2만 8천여 명으로 감소했지만, 1947년에 이르러서야 귀환은 완료되었다. 또한 부산의 일본인 세화회는 1948년 8월까지 계속해서 활동했는데, 이는 일선결혼 파탄자의 송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옮김, 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182쪽) 후지와라 데이의 귀환 여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 김만선의 『암록강』에서도 귀환 일본인의 모습은 매우 처참한 것으로 묘사된다. “피란민은 조선사람만이 피란민인게 아니요 일본인들도 적지않아, 산동(山東) 쿠리(苦力)보다도 더 걸뱅이같은 거적떼기 한잎씩을 끼고 다니는 그런 피란민들의 수용소의 넓은 마당에는 의젓것 조그마한 애충들이 날마다 놀어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끔 즐비한 광경을 보고 또 이른 아침에 젊은 여자들이 자식의 무덤앞에 꽃을 꽂아놓고 합장하는 꼴을 발견할 때면 가슴이 찢르르 했던 원식이었으나 여진 치를 떨었다.”(99)

다. 그리고 그 붕괴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은 따뜻한 고향과 가족의 품이다. 그녀가 귀환하는 곳은 국가가 아니라 고향과 가족인 것이다.

처음 신경에서 출발할 때는 기상대 직원 가족 50명이 함께 출발하지만 그 인원은 39명에서 29명으로 다시 18명으로 줄어들다가 38선을 넘은 시점에서는 후지와라 데이 혼자 남게 된다. 일본제국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인회의 역할도 점차 약해진다. 처음 만주에서는 제법 큰 역에 도착하자 일본인 부인회에서 나와 주먹밥과 감자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1년여를 머문 선천을 떠나 남하하려고 할 때 일본인회의 책임자인 야마기시 씨는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159)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이 귀환의 여정에서 일본이라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분해되는데, 이 과정은 만주국의 정당성이 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인 공동체의 붕괴는 “천문학자”(122) 나리타와 어린 다미오의 죽음을 통해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천문학자 나리타의 죽음은 일본이 만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 도구적 이성의 무참한 몰락을 의미한다. 후지와라가 속한 단체는 기상대 소속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당시 가장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소유한 기술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리타는 선천에 머물 당시 시간을 알기 위해, 새끼줄과 막대기 등의 원시적 도구만을 이용하여 해시계를 만든다. 나리타 씨는 깨끗한 막대기를 구하지 못해 10분 정도 오차가 날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 나중에 보안대 사람이 가져온 시계를 통해 10분이 아니라 15분의 오차가 난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리타는 “15분이나 틀리다니, 이상한데. 아마 그 사람 시계가 안 맞는 모양이네요.”(64)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는 일본의 발전된 도구적 이성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인물이며, 이러한 인물이야말로 일본이 조선이나 만주를 야만시한 논리적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귀환 도중 무력하게 죽고 만다.<sup>21)</sup> 물질적인 열악함과 공동체 정신의 파괴는 여섯 살 밖

21) 이 부분에서 후지와라는 “힘없이 비틀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여름 밤 하늘을 올려다보

에 되지 않은 다미오의 죽음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계모가 학대하여 굶어 죽는데, 이것은 아이의 생명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일본인 단체의 허약하고 비인간적인 측면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이제 의사 같은 것은 있거나 말거나, 죽을 사람은 죽게 되어”(147) 버린 것이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누가 뭐래도 좋다, 그저 나만 제일 먼저 이곳을 떠나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라도 도망치겠다는 추악한 모습들”(156)을 보여준다. 기상대 내부에서도 도난 사고가 발생하며,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챙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아이에게서 나는 대소변의 냄새나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얼음 깨는 소리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후지와라 자신도 “나머지는 알 게 뭐냐”(184)며 아이들과 자신만을 생각한다.

동시에 후지와라의 귀환 여로는 만주국에서 경험했던 민족적 위계가 깨져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무책임한 일본인과 그에 대비되는 조선인의 모습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후지와라 테이는 담배장사, 비누장사, 인형장사, 밥 집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걸할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이때마다 조선인들은 그녀를 도와준다.<sup>22)</sup>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후지와라의 아들이 아팠을 때이다. 마사히로가 아플 때, 일본인 단체의 오야 의사는 “디프테리아가 틀림없으니, 포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100)며 아예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구세병원의 조선인 의사는 돈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순수한 선의로 마사히로에게 매우 비싼 주사를 무료로 봐준다.<sup>23)</sup> 이 귀환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38선 돌파의

던 천문학자의 최후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둡고 비 오는 밤이어야 하는지!”(178)라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른 수많은 죽음을 대하는 무심한 태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22) 노영희는 “후지와라 테이가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서 기록한 한국인들은 참으로 일본인 귀향단원에게 호의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같은 일본인 귀향단원들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그려져 있어서 흥미롭다.”(2007,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와 여자의 전쟁체험』, 『일본학보』 72집, 177쪽)고 이야기한다.

장면에서는, 조선인 보안대원이 “제길! 일본놈들! 이렇게 곤란한 사람을 내 버려 두고 도망가다니. 늘 그렇다니까! 아무리 패전국민이라지만, 쳇!”(204) 이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sup>24)</sup>

이 글에서는 만주에서 멀어질수록 위에서 말한 ‘일본인 공동체의 해체’와 ‘일본인의 비인간화가 더욱 심해진다. 38선을 넘은 후에는 아이를 트럭에 태워주던 백발 노인 같은 일본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개성에서는 “돈이 남아돌아 걱정인 모양”(213)인 법학 전공의 사기꾼 일본인을 만나기도 한다. 부산행 기차에서 “일본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개인주의와 극도의 혐오감이 뒤죽박죽이 되어, 눈을 흘기고 마음으로 시기하며 인간의 근성 저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드러낸 채 구더기처럼 들끓었다.”(220)고 이야기된다. 실제로 후지와라의 두 아들이 설사를 하자, 일본인들은 후지와라에게 냄새가 난다며 온갖 구박을 퍼붓는다. 하카다항에 정박한 배에 한 달여를 머무는 동안에는 불공정하고도 매우 부실한 배급을 받는데, 그것은 “개성에서도, 의정부에서도, 부산에서도, 남조선의 피난민 수용소 어느 곳에서도”(234)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그 배 안에서 후지와라는 “아이 딸린 여자라는 이유”(236)로 책도 보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며 온갖 구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배급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선창장에게 “추잡한 년 같으니라고!”(237)라는 말까지 듣게 된다.

그러나 고향인 스와에 이르는 일본 땅에서의 여정을 통해 후지와라는 일본인들의 따뜻한 인간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후지와라가 자신을 회복(인식)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기모노를 입은 여인을 보며 후지와라는 처음으로 “버선도 없이 걸고 있는”(252)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 도쿄행 보통열차에서 만난 한 일본인은 아이들에게 배를 주는 호의를 베풀

23) 이와는 별개로 ‘무저항주의’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향해 드러내는 적대적 행동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

24) 그러나 일본인들 사이에도 연대의 정과 행동이 조금은 남아 있다. 마사히코가 폐렴을 앓았을 때나, 마사히코가 디프테리아에 걸렸을 때 일본인들은 후지와라 데이를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우의는 일본인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적대와 분열에 비한다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송환될 때 이야기를 “자꾸만 꼬치꼬치”(257) 캐묻는 한계를 보여준다. 고향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록 사람들은 점점 친절해진다. 나고야 역에서는 의료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아픈 사키코를 돌봐주고, 사오지리에 도착했을 때는 한 무리의 청년 남 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후지와라의 “짐을 빼앗듯이 들고, 마사히로를 안고, 마사히코를 업”(259)어 주기도 한다. 이들을 보며 후지와라 데이는 “고향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259)는 것이다. 이후 기차에서 만난 고향 말씨의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선반의 보자기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모조리 후지와라의 손에 쥐어 준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스와시에 도착 해서야 후지와라는 유령의 모습을 한 거울 속의 자신을 보게 된다. 생존에만 매몰된 짐승을 벗어나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후지와라가 동생들과 부모님의 품에 안기며, 마음속으로 “이젠 됐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265)고 되뇌는 것으로 후지와라의 귀환기는 끝난다. 그 귀환의 서사는 고향, 더 좁게는 부모님의 품 속을 향한 여정이었던 것이다.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귀환의 과정을 통해 만주국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환상을 기초에서부터 허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내셔널리즘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결정적인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과 고향, 그리고 집단주의가 절대적 존재로 굳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근친애가 혈통에 대한 강조와 친연관계에 있으며, 혈통과 고향에 대한 강조가 종족적인 내셔널리즘의 밑바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다.<sup>25)</sup>

25) 혈연과 향토애를 상징하는 ‘피와 흙은 민족(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원어인 “Nation이란 라틴어의 nasci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 출생”(이광규, 2006, 『신민족주의의 세기』, 서울대출판부, 17쪽)을 의미하며, 민족 집단은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출생에 의하여 부가되는 원초적인 것”(Fredrik Barth(ed),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Waveland Press, p.13)이라는 견해도 있다. 장문석은 “민족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조상과 영토에 기초한다고 여겨지는 사회 집단이다. 가족의 특징이 유전되듯이, 민족의 특징도 유전된다. 단, 민족의 경우에 유전은 생물학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하다. 어쨌든 ‘피와 흙은’ 늘 민족을 따라다니는 본질적 요소이다. (중략) 민족은 일단 영토적인 혈연 공동체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로스비의 간명한 정의에서 출발하

이와 관련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 등장하는 대머리와 그를 바라보는 후지와라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동물로 변해 가는 이 작품에서, 대머리는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동물로서 형상화된다. 후지와라가 진심으로 증오하는 인간이 바로 대머리이다. 미야모토 단체의 책임자인 대머리에게 후지와라는 자신의 단체와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을 하지만, 대머리는 “알겠소. 개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가지.”(155)라고 쏘아붙인 후에 결국에는 몰래 자신의 단체만 인솔하여 출발한다. 신막을 지나 남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난 대머리는 그때도 지난 일을 따지는 후지와라에게 “비렁뱅이 계집 주제에!”(179)라는 폭언을 하기도 한다. 대머리는 38선을 넘기 직전에 보안대의 강요로 후지와라의 큰아들인 마사히로를 맡아 남하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사히로를 산 속에 팽개치고는 도망간다. 그러나 일본 땅을 밟은 후에, 대머리가 책임자로 있는 미야모토 단체의 해산 장면을 보며 후지와라는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선천에 있을 때 십여 개에 이르던 단체 중에서 오직 하나, 이 단체만이 마지막까지 결속해 온 것은 역시나 대머리의 통솔력 때문이었으리라.

“내 단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단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단장들의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던 대머리는, 사실 절대적인 개인주의자였으며 내가 불구대천치원수처럼 증오했던 남자였다. 그러나 자기 단체를 지휘하는 데 그 개인주의를 버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대머리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섰다.

“어이, 기상대 여단장. 당신네 단체는 어찌 되었소?” 대머리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완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상대 단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에도 없다.(256)

대머리는 여타의 일본인들에게는 그토록 사악한 존재였지만, 자신이 책임진 단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한 위인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머

---

자면, 민족이란 ‘혈연 공동체, 특히 구획되고 영토적으로 확장되며 시간적으로 깊이 있는 원주민 공동체인 것이다.’(장문석, 2011, 『민족주의』, 책세상, 24~25쪽)라고 설명한다.

리의 단체만이 유일하게 일본까지 그 체제를 유지해온다. 이러한 대머리를 보며 후지와라는 이전과 같은 분노 대신 부끄러움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다. 위 장면을 통해 대머리는 ‘우리’와 ‘우리 아닌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임이 밝혀진다.’<sup>26)</sup> 후지와라는 대머리의 이러한 공동체 지향성을 그 어떤 인간적 흠집보다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육친애와 향토애, 그리고 대머리를 통해 보여지는 집단주의가 엄존하는 한, 선천에서 후지와라가 조선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조선쟁이’라는 말이 튀어나”(50)왔듯이,<sup>27)</sup> 또 다시 일본 내셔널리즘은 역사의 무대에 귀환할지도 모른다.

### 3. 새로운 주체의 탄생가능성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와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후지와라가 그토록 갈망하던 고향이 『소년은 자란다』에서는 애당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년은 자란다』에서는 사실상 가족과 고향은 미래에 만들어나가야 할 미래형으로만 존재한다. 민족주의의 근원적 뿌리가 될 수 있는 가족과 고향 자체를 지위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다른 귀환소설들과도 매우 차이나는 지점이다. 대부

26) 민족주의는 “‘우리’와 타자, 즉 외부를 구분하여 ‘우리’를 본질화·총체화하는 문화적 힘을 생산”(김은실, 1994, 「민족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0집, 25쪽)해내는 담론이다. 민족주의는 타자를 상상하고 그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라는 일체감은 형성하고, 이것은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27)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서 중국인의 존재도 철저히 망각되고 억압되어 있다. 유일하게 한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선천에 머물 때 일본인을 상대로 야채를 파는 젊은 중국인이다. 그는 세이코라는 예쁜 소녀에게 반해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세이코의 어머니인 오치 부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97)한다. 정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인종적 타자의식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의 귀환소설에서 고국은 기대를 충족시켜 줄 공간으로 상상되며, 지난날의 조선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호출되기 때문이다.<sup>28)</sup>

한국의 귀환소설들도 대부분 고향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정비석의 「귀향」(『경향신문』, 1946.10-11)에서 최노인은 아내의 죽음으로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고향 생각이 간절”<sup>29)</sup>해진다. 이전부터 그에게 고향은 “이십 년을 두고 오매로 그리던”(574) 대상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김동리의 「혈거부족」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중병이 든 순녀의 남편은 해방이 되자 아내에게 “이보, 날 어찌든지 고향까지만 데려다주”(64)라고 말한다. 남편은 “희망이란 것이 다만 고향에 가 묻히기나 하고 싶다”(65)는 것뿐이다. 이후 병이 깊어져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남편의 눈빛은 “고향에 돌아간다”(65)라는 말을 하듯한 광채를 드러낸다. 이러한 남편의 모습은 순녀의 회고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 등장한다. 순녀 역시도 남편의 귀향을 향한 강렬한 욕망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인제 해방이 됐으니까 병도 물러나겠지, 고향에 돌아가 개나 몇 마리 구해 먹고 하든 그만한 병줄썩이 설마 안 떨어질라꼬?”(65)라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팔아서라도”(66)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에서 고향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지워버린 고향이라는 장을 따로 두어 그 사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오서방의 고향은 본래 충청북도 청주이며, 먼 옷대 조상은 양반이었으나 오서방의 아버지 말년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모두 일본 사람의 것이 되고, 오서방은 “송곳 하나 꽃을 땅이 없는 알짜 조각인”(312)이 된다. 오서방은 열여섯에 장가를 갔지만, 아내는 영호의 배 다른 형 영만이 열 살 되던 해에 “양복 입고 하이칼라하고 똑똑하고 돈 있고 한 사람을 따라 붓짐을

28) 정재석, 앞의 논문, 173쪽.

29) 정비석, 1995, 「귀향」, 『한국소설문학대계』 23권, 동아출판사, 572쪽. 앞으로의 인용 시 본문 중에 쪽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짜고 말았”(312)다. 동네 사람들은 “위인이 오죽 못났으면 계집을 뺏기느냐”(313)며 오서방을 비웃고 손가락질한다.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오서방은 “내가 죽는 날까지도 고향에는 발길을 들여놓지 아니하리라.’ ‘자식더라도 고향을 찾지 말라고 가르치고 유언하리라.”(313)는 결심으로 영만을 이끌고 고향을 떠난다. 오서방이 만주까지 떠난 이유에는 만주가 “농사하고 살기가 좋다”(313)는 것도 있지만, 만주에서는 “또, 만나 창피할 아무도 없”(313)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오서방의 아내 역시 전남편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저 혼자만의 의혹과 질투로 무서운 매질을 했던 것이고, 이를 피해 가출했다가 오서방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선뜻 오서방을 따라 만주에 가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고향에 있는 그 사내 때문이다. 해방이 되고도 조선이 좋다는 사람들의 말에 오서방의 아내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말이지!”(317)라며 귀향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사나이는 지금도 고향에 살아 있을 것이요, 그 사나이가 살아 있는 날까지는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318)인 것이다. 이처럼 영호의 부모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소년은 자란다』에서 “실재의 장소라기보다는 친밀한 세계에 대한 감각”(30)으로서의 향수가 발생할 여지는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가족과의 결합을 지향점으로 한 서사라고 한다면, 『소년은 자란다』는 가족의 해체로 귀결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은 자란다』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영호와 영자 남매가 아버지 오서방과 헤어져 영호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역시도 ‘지워버린 고향과 무관하지 않다. 만주에서 어머니와 동생 영수를 잃어버린 오서방 가족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막연히 전라도로 향한다. 그러나 대전역에서 아버지가 기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영호는 아버지 오서방과 헤어지고 영자와 둘만 남겨지게 된다. 본래 가고자 하는 역이 분명하다면, 이런 사소한 일로 가족이 헤어지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영호의 아버지

도, 서울서 떠나면서까지도 향방이 걱정이 없었”(359)기에 이처럼 사소한 실수로 인해 가족간의 이별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설령 심신이 모두 허약했던 오서방이 병들거나 심지어 죽은 것이라고 해도 목적지만 분명했다면, 그 소식을 영호 남매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지워버린 고향이 장차에 어린 영호 남매로 하여금 불행을 더 크게 할 것인 줄이야 아무도 짐작인들 못하였던 노릇이었다.”(316)라는 말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고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선을 향하는 영호 가족의 여로는 귀환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유랑에 가까우며, 영호 가족은 귀환자가 아니라 피난민에 가깝다. 따라서 여타의 귀환소설들에서 등장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귀속되기 위한 상징적 의례<sup>31)</sup>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도 왕청현 대이수구(大梨樹溝)를 떠나 서울에 도착하는 과정은 단지 한단락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다.<sup>32)</sup>

영호의 아버지를 지배하는 것은 철저한 생존의 논리뿐이다. 이들이 만주에 온 이유 역시 “무식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만만하였”(285)고, “만만하기 때문에 땅 기름지고 기후좋은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쫓기어 이 풍토(風土) 사나운 만주로 흘러와 강냉이 조팝을 먹으면서 고생을 하는 것”(285)이다. 그들은 고국으로부터 쫓기어 만주로 몰려난 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보다도 오히려 가난하고 무식하여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286)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sup>33)</sup>

조선으로 돌아가는 이유 역시도 민족의식보다는 생존의 논리에 따른 것

31) “만주로부터의 귀환서사에서는 만주 이주 이전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귀속되기 위한 상징적 의례들이 발생한다.”(최정아, 앞의 논문, 372쪽)

32) 그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낙타산을 떠나 도문(圖門)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 소련군이 차지하고 있는 고국의 이북땅을 함경도로 내려와 38선이라는 것을 넘어, 그러는 동안 여러 곳에서 차를 내려 며칠씩 기다렸던 겨우 다시 얻어 타고 하면서, 그러다가 가까스로 ‘남대문’ 정거장에 닿아, 전채민 열차로부터 영호 남매를 손목을 이끌고 내리기는 시월도 다 가는 그림이 임박하여서였었다.(337)

33) 물론 이들에게도 삶에 배어져 있는 “수수한”(289) 민족의식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존재한다.

이다. 대이수구의 농민들은 일본 사람들이 술해 땅을 내놓고 갔으니 최소한 붙여먹을 땅은 있을 것이며, 압제 주던 일본인이 없다면 만주보다는 훨씬 살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귀향을 결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새 조선의 주인이 되네 어찌네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307)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은 하여커나 부쳐먹을 땅이 있을 것은 변연”(307)하다는 사실이다. “땅이야 집을 얻어 편안히 농사하면서 가난과 압제 없는 세상”(338)을 사는 것이야말로 귀환의 이유인 것이다. 영호의 “전라도루 농사하러 가는 길예요 우린 전재민예요.”(360)라는 말처럼, 이들 가족의 정체성은 만주에서 귀환한 ‘농민’이라는 것밖에는 없다. 그들은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해 귀환하는 것이고, 오선생의 추천에 따라 넓은 벌이 있는 전라도로 향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영호의 가족은 조선 땅을 밟은 순간부터 민족적 일체감이 아니라 차이와 적대감과 마주치게 된다. 영호는 계동 어귀에서 잘 차려 입은 사람들을 보고서는, “영호는 저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조선 사람이 아닌성만 싫어졌다.”(341)고 이야기한다. 일반 서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재민의 원호를 담당하는 원호소 사람들까지도 “유심히 보거나 더욱이 동정의 빛을 보이거나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343)다. 그리고 곧 해방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왜사람 대신 미국 사람들이 들어앉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사는 여전히 백성에게는 무서운 물건인 채로 있던 것”(345)이다.<sup>34)</sup>

일반 백성들은 오서방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349), 살찌는 것은 “장사치들과 이 장사치들이 들여미는 뇌물로 치부를 하는 군정의 벼슬아치들”(349)뿐이다. 오서방이 조선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조선으로 귀환 이후 가장 많이 눈에

34) 이러한 인식은 마지막에도 다시 한 번 반복된다. “그렇다면, 타국으로 흘러가서 간신히 의지하고 살던 집과, 농사하던 땅이며, 농사진 곡식, 애탄가탄 장만한 세간과, 더러는 어머니까지도 해방은 우리에게서 뺏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준 것은 압제 없는 살기와, 살 집과 농사할 땅과의 대신에 입었던 옷을 누더기를 만들게 한 것과, 석탄 부스러기와 밀가루와 쓰러져가는 저 알량한 집과 이것이 아닌가?”(404)

띄는 것은 곳곳에 널려 있는 대소변이다.<sup>35)</sup> 그것은 서울과 이리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에서 우리의 국토는 여타의 귀환소설에서처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금수강산’이 아니라 온통 대소변에 덮여 있는 일종의 “변소”(351)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소년이 자란다』는 민족공동체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 이리를 작가가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는 없다. 그곳에는 엄연히 파렴치하며 돈만 밝히는 여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야말로 영호의 삶에 가장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호는 여관 주인과 주인의 형님이라는 여자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로 받아들인다. 이 두 여자와 같은 계열의 사람들로 이리 역에서 영호를 놀리던 “양복 신사”(389)와 같은 사람들이 제시되며, 영호는 그들을 “조선 사람인 것 같지가 않”(389)다고 여긴다. 여기에는 6호실에 머무는 눈뚱부리와 반대머리도 포함된다. 그들은 미국 사람에게 술과 선사와 색시와 돈을 안기고는 그 대가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딴 세상 사람들인 것만 같은 사람들”(399)인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적실히 차가운 것이 있는 “물고기”(377)로 표상됨으로써, 같은 인간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sup>36)</sup>

오히려 기차 속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성을 발휘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헤어진 영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준다. 기차 속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본 “조선 사람으로 여겨지지를 았던 사람”(366)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영호가 보기에 “옷 차림차림이랑, 거친 살결이랑, 다같이 가난하고 명색도 없고 한 사람들”(366)이었다.<sup>37)</sup> 다음으로 영호가 조

35) 최정아, 앞의 논문, 382~383쪽 참고.

36) 안미영은 『해방공간 귀환전제민의 두려운 낮잠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2011, 『국어국문학』 159집)에서 “간도, 서울, 이리 일련의 공간은 각각 생존 공동체, 이기적 집합체, 정서적 공동체라 명명”(287)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리도 분열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이기적 집합체’의 성격도 강하게 남아 있다.

37) 류보선은 또한 기차 안의 사람들이 영호 납매를 돕는 모습에서 채만식이 “교환의 경제를 넘어선 탈자본적 민족=국가를 상상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2012,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 『현대소설연구』 49권, 176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에의

선인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다음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기층민중들이다.

이 여자들에게서는 그 떡장수 할머니를 비롯하여 정거장 너른 마당에 널려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장사 사람들이며, 지겟벌이꾼이며, 또 아버지를 잃어버리던 그날 밤에 만난 촌 영감이며, 그 양복 입은 사람이며, 돈을 보태어 주던 사람들이며, 목단강서 온다던 전채민 내외며, 더는 대이수구의 동네 사람들이며, 오선생이며…… 이런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맛이나, 무례하고 지저분한 흠은 있어도, 흉허물 없고 임의롭고, 그래서 저질로 우려나는 구수한 맛이나 이런 것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388)

그런 훌륭한 보이면서도 실상은 아무것도 훌륭할 것이 없는 세상에다 대면, 차라리 누더기를 걸치고 지저분하고 좀 무례하고 하기는 할망정, 정거장 앞에서 대떡을 파는 할머니며, 여러 음식점수들과 지겟벌이꾼이랑, 아버지를 잃어버리던 그날 밤 찻간에서 만난 촌 영감, 그리고 양복 입은 사람이며, 오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비록 훌륭한 사람이든 못하겠지만 얼마나 사람스럽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따뜻한 맛 구수한 맛이 풍기는 사람들인지 몰랐다.(400)

이들의 모습은 일종의 무산자 공동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영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영호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든 못하”다며, 자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가기만이 원”(402)이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일단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영호가 택하는 것은 “우선부터라도 훌륭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삼가”(401)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물고기’들로 가득한 여관을 떠나고, 영자를 또한 여관주인 언니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소년은 자란다』는 영호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맞서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난다.

---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장소가 기차간이라는 것, 따라서 그 우애의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행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제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길 수밖에  
별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영호, 저 홀로 이 세상에 있었다.

영호, 저 자신에 대하여서나 영자한테 대하여서나, 이 세상에는 오직 영  
호 저 하나만 있을 따름이었다.

부모도 없고, 영자를 데리고서 저 혼자인 영호는, 그러므로 영자를 데리  
고 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내일 정거장에 나간 길에 방을 하나 얻고, 조그맣게 하꼬방 장사를 내자면  
얼마나 들겠는지, 부디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영호는 생각을 하였다.(408)

인용한 위의 대목에는 ‘홀로’, ‘하나’, ‘혼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  
다. 여기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  
로 세상과 맞서겠다는 영호의 강력한 의지가 발견된다. 완전한 단독자로 선  
영호를 통해서 민족으로의 통합이라는 귀환서사는 해체되어 버리며, 미약  
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 4. 결론

1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기에 쓰여진 한국의 귀환소설은 대부분  
강렬한 민족주의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소설에서는 과거 만주국에  
서 제국의 신민으로 살던 경험 자체가 무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정비  
석의 「귀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1년 전에 “왜놈들 때문”(573)에 고향인 오리나무 마을을 떠나 만주로 건  
너갔던 최노인은, 만주에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죽은 아내를 만주에 남겨두  
고 아들 내외와 함께 돌아온다.<sup>38)</sup> 이 작품에서 최노인은 단 한 번도 만주에

38) 정중현은 해방 이후 귀환소설에서 “식민지 제국 시절 개인의 욕망과 경제적인 이해에  
따른 이주와 이동도 모두 식민지적 현실에 의한 수난의 기억으로 단일화·서사화되었

서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다. 심지어 이 작품에서는 최노인이 모르던 또 다른 아들이 오리나무 마을에 살고 있다는 우연적인 설정까지 등장한다. 최노인의 첫사랑인 탄실이 최노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권참봉의 첩이 되어, 그 아이를 권씨 가문의 아이로 길러낸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해방 이후 탄실의 아들은 마을의 보안대장이 되어 “배급이니 치안이니 하는 것을 척척해나가는”(580)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다. 최노인이 만주에서 산 20여년의 세월은 사실상 이 작품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으며, 제국 신민으로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귀향」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강렬한 파토스를 환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끝난다.

그렇게 해서 이 오리나무 마을 사람들은 연년세세로 바뀌어 가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이라 이 마을은 언제나 이 마을 사람들로 해서 유지되어 갈 것을 굳게 믿었다.

설령 권세를 다투는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치더라도 이 마을의 주인은 역시 이 마을 사람들뿐이라, 형이요 아우요 하는 그들이 일치단결하여 마을을 굳게 지켜 가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에 느긋한 행복감이 느껴져서, 최노인은 하루바빠 우리나라의 정부가 서기를 고대하며 저물어 가는 마을을 언제까지고 그윽한 시선으로 정답게 굽어보고 있었던 것이다.(586)

‘이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리나무 마을’이 환기시키는 강렬한 민족주의야말로 해방 이후 귀환서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이 쓴 수많은 귀환서사 중에서도 유독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만이 동시대 한국인들에게 그토록 큰 반응을 얻은 것도, 후지와라의 글에 잠재된 민족주의적 정서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 만주국 붕괴 이후 일본에서도 수많은 귀환서사가 쓰였다. 이들 중에는 고향이나 국

다.”(정중현, 앞의 논문, 154쪽)고 주장한다.

가의 근본적인 의미를 묻거나 고향의 상실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도 많다.<sup>39)</sup>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한국에 번역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죽더라도 고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서 죽고 싶었다.”(162)라는 마음을 기본적인 정서로 삼고 있는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창작과 거의 동시에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것은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당대의 한국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통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의 열기에서 벗어나 단독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는 매우 이례적인 귀환서사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이라는 존재를 통해 해방 이후를 조망하며, 독특한 반식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이 작품은 당대의 인식론적 지평을 훌쩍 벗어난 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가 1949년 2월 25일에 창작되었지만 발표는 1972년 9월에야 이루어진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의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39) 만주국 붕괴 이후의 귀환서사는 일본인에 의해 여러 편이 쓰여졌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베 고보(安部公房)가 쓴 장편소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1957)를 들 수 있다. 아베 고보는 만주국이 괴멸된 후 1년 반 남짓을 심양에서 보냈다. 이 작품은 북만주에서 태어난 16세의 일본인 소년 규조가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끝내 귀향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봉천에 있을 때에는 일본 꿈을 꾸고 일본에서는 봉천 꿈을 꾸다. 나는 가끔씩 내 자신이 고향 주변을 맴돌면서 결국에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시아의 망령인 듯한 기분이 든다.”(이정희, 2001, 「아베고보(安部公房)와 <만주>체험」, 『일어일문학연구』 39권, 346쪽에서 재인용)는 작가의 생각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고보에게 만주국 붕괴와 그에 따른 귀환은 “국가라든가 고향이라든가 하는 것에 귀속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를 생각”(위의 논문, 348쪽)하게 만드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귀환소설로는 만철의 사원이자 만주문단의 핵심 작가였던 아키히라 가쓰지(秋原勝二)가 쓴 장편소설 『커다란 느릅나무 - 지린의 동란 · 어떤 기억(楡の大樹 - 吉林の動亂 · ある記録)』(1979)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재만 일본인인 소우키치가 만주국 붕괴라는 상황에서 분열과 괴리를 겪으면서 일본 내부로 ‘귀환’하려 하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듯이 그 ‘귀환’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재만 일본인들은 만주에서도 일본 내부에서도 ‘고향’을 상실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안지나, 2015, 「재만일본인 작가의 ‘귀환’과 ‘고향상실’」, 『만주국 붕괴 이후의 동아시아 문학』,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2단계 제1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10쪽 참조)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만선, 『압록강』, 동지사, 1948  
염상섭, 「해방의 아침」, 『염상섭전집 10』, 민음사, 1997  
정비석, 「귀향」, 『한국소설문학대계』 23권, 동아출판사, 1995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채만식전집 6』, 창작과비평사, 1989  
후지와라 데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청미래, 2003

### 2. 국내문헌

- 강인철, 1998, 「미군정기의 인구이동과 정치변동」, 『한신논문집』 15집 2호  
김승민, 2007,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 연구』 16호  
김은실, 1994, 「민족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0집  
김종욱, 2008,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현대문학의 연구』 35집  
노영희, 2007,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와 여자의 전쟁체험」, 『일본학보』 72집  
류보선, 2012,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 『현대소설연구』 49권  
안미영, 2011, 「해방공간 귀환전재민의 두려운 낯섦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9집  
안지나, 2015, 「재만일본인 작가의 ‘귀환’과 ‘고향상실」, 『만주국 붕괴 이후의 동아시아 문학』,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2단계 제1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오미정, 2009, 『일본 전후문학과 식민지 경험』, 아카넷  
오태영, 2007.6,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문학연구』 32집  
이광규, 2006, 『신민족주의의 세기』, 서울대출판부  
이정희, 2001, 「아베고보(安部公房)와 <만주>체험」, 『일어일문학연구』 39권  
장문석, 2011, 『민족주의』, 책세상  
정재석, 2007,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2호  
정종현, 2006,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 『비교문학』 40집  
최정아, 2009,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33집

### 3. 국외문헌

- 高崎宗司, 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이규

수 옮김, 역사비평사

山田昭次, 1978, 『近代民衆の記録6 滿州移民』, 新人物往來社

山室信一,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윤대석 옮김, 소명

淺野豊美 감수 해설, 2005, 『살아서 돌아오다-해방공간에서의 귀환』, 이길진 옮김,  
술

Barth, Fredrik (ed),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Waveland Press, 1969

Boym, Svetlana,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 2001

투고일 : 2015년 5월 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10일

■ Abstract ■

Study on Repatriate Narratives After the Collapse of  
Manchukuo

— With Focus on Chae Man-sik's <Growing Boy> —

Lee, Kyung-Jae

Upon collapse of Manchukuo, Manchuria was engulfed surging nationalism among the Manchurian. That sensation soon turned into violence toward the Japanese and the Korean. Kim Man-seon's 「Repatriate」 and 「Dual Citizenship」 depicts that Manchurians' violence toward the Korean was attributed to their ambiguous position where they belong to the space of discourse of both OjokHyeophwa(五族協和) and NaeseonIlche(內鮮一體). Under this circumstance did many Koreans choose to return to their native country and most epics that reflect this phenomenon depict the process of Imperial Japanese colonies turning into Korean nationals based on nationalism. However, Chae Man-sik's <Growing Boy> demonstrates non-nationalistic literary aspect beyond a heat wave of nationalism. This paper has taken an in-depth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Growing Boy> through comparison with <Flowing star is alive> written by Dai Fujiwara in about the same period of time. Dai Fujiwara's <Flowing star is alive> is an essay that recorded the process of returning from Changchun through Korea to the hometown of Suwa upon collapse of Manchukuo. The journey of return reveals every bit of Japanese hypocrisy with the legitimacy of founding Manchukuo disintegrated from its core. What fills the emptiness following the disintegration is the bosom of the family and hometown. <Flowing star is alive> tears down the illusion of ethnic community of Japan, the practical owner of Manchukuo from its foundation through the process of return. However, the family and hometown that can serve as the pivot of building the

community of Japan lies deep in the heart of the work as the absolute being. The stark difference between Dai Fujiwara's <Flowing star is alive> and Chae Man-sik's <Growing Boy> is that the hometown desperately sought by Fujiwara was ruled out in <Growing Boy> in the first place. The journey of return of Yeongho's family to Korea with the absence of their hometown was not very different from wandering and Yeongho's family was close to refugees, not repatriates. The identity of Yeongho's family that goes after the logic of survival only was nothing but the 'farmers' returned from Manchuria. <Flowing star is alive> boils down to the conclusion with family reunion while <Growing Boy> ends with the disintegration of family. Eventually, <Growing Boy> depicts the birth of a new main character filled with potentials albeit vulnerable, escaping from the heat of nationalism through Yeongho who stood on his own feet as a perfect solitary man.